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 Vol. 22, No. 3, 641 - 660

분노-억압 집단의 방어적 투사

고 영 건† 안 창 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MMPI와 로샤 검사를 통해 분류한 분노-억압 집단이 정신역동 이론과 사고억제 이론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실제로 방어적인 투사를 보이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피험자로는 한 대학의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생 55명(남자 29명, 여자 26 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MPI와 로샤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피험자들을 높은 분노 집단, 낮은 분노 집단 그리고 분노-억압 집단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세 집단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에 대한 자료를 주고서 자신이 그러한 인물과 얼마나 다른 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분노-억압 집단은 높은 분노 집단과 낮은 분노 집단보다 공격적인 인물에 대해 더 높은 차별화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특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으므로, 공격적인 인물과 자신이 다르다고 평가한 정도, 즉 차별화 점수는 사실상 투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끝으로 분노의 억압을 평가하는 임상적인 의미와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분노의 억압, 방어적 투사, 다중기법, MMPI, 로샤 검사

---

* 본 연구는 2002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고 영 건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FAX : 02-6223-3928 / E-mail : elip@korea.ac.kr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중 하나인 억압(repression)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억압을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정립하는 데는 Freud가 커다란 공헌을 했지만, Freud가 이론화하기 전에도 억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였다(Davis & Schwartz, 1987). 정신역동 이론에서 억압은 불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충동에 대한 인식을 피하고 또 위협적인 기억을 망각하거나 의식에서 몰아내어 무의식 속에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White, 1964). Freud(1920/1935)는 억압이라는 기제가 다른 방어기제들의 일부분인 동시에 방어의 초석이 된다고 하였다. Freud는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억압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Davis & Schwartz, 1987), 외상의 억압, 분노의 억압, 불안의 억압, 죄의식의 억압, 수치심의 억압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 중에서 분노를 억압하는 것은 다양한 적응 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 분노를 억압하는 것은 다양한 정신·신체적인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 분노의 억압은 고혈압(Henry, 1988), 두통(Packard, Andrasik, & Weaver, 1989), 심혈관 장애(Harenstam, Theorell, & Kaijser, 2000), 암(Hiller, 1989), 요통(Albrecht, 2001), 천식(Yellowlees & Ruffin, 1989) 그리고 당뇨와 류마티스성 장애(Phipps & Steele, 2002) 등의 만성적인 질환들에 영향을 준다.

둘째, 분노를 억압하는 것은 신경증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적어도 잊고 지내는 동안만큼은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억압은 날이 개고 나면 간밤에 천장에서 비가 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Vaillant, 1977)과 유사한 현실적응 상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셋째, 분노를 억압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투사(projection)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신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즉 억압적으로 반응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애쓰게 되며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Pyszczynski, Goldenberg, Solomon, Cather, Gat, & Sideris, 1995).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Freud(1896/1962)는 만약 누군가가 타인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분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신에 대한 비난을 투사의 형태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면의 분노감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타인에 대해서 과도한 불신감과 혐오감을 표현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Vaillant (1977)는 억압이 투사와 결합하게 될 때, 가해자와 핍박을 받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Jung(1951/1971)은 이처럼 억압과 투사가 결합하는 과정을 무의식 속의 그림자(shadow)가 투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분노의 억압과 투사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무의식을 강조하는 정신역동적인 접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 둘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무의식을 가정하지 않고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식적인 회피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 이론이다.

Newman, Duff와 Baumeister(1997)는 무의식을 가정하지 않고도 분노의 억압이 투사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억압이라는 표현 대신 사고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억제 과정은 억압자(repressor)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적응을 유발하는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에서의 억제와 DSM-IV(APA, 1994)에서 기술하고 있는 성숙한 방어기제 중 하나인 억제(suppression)는 비록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Vaillant(2000)에 따르면, 성숙한 방어기제로서의 억제는 혼란스러운 문제들, 욕구들, 감정들 혹은 경험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합리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억압적인 사람과는 달리, 날이 갠 다음에도 간밤에 천장에서 비가 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Newman 등(1997)의 사고억제는 DSM-IV의 방어기제와 비교할 경우, 억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억압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Newman 등(1997)에 따르면, 사람들이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루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러한 경험들과 관계된 사고내용들을 생각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억제하는 사람들(억압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증거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면, 자신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의도하지 않았던 역설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할 경우, 오히려 멀리하고자 하는 사고내용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이러한 반동효과(rebound effect)는 마치 실연을 한 사람이 애인을 잊으려 하면 할수록, 애인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생각에 대한 회피적인 노력은 일반적으로 주의분산자(distractor)를 사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주의분산자란 억압되는 것 이외의 다른 사고내용을 말한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마음 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특정 주의분산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새로운 주의분산자가 선택된다. 나중에 그 새로운 주의분산자가 사람들의 주의를 붙들어두는 데 실패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또다시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또 다른 주의분산자를 요구하게 된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데는 유용하다 할 지라도, 계속 반복되다보면, 원치않는 생각과 주의분산자가 동시에 의식 속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로서 주의분산자와 원하지 않는 사고 간에 연합이 형성된다. 그 이후로는 회피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원하지 않는 생각과 주의분산자 간 연합의 강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회피적인 노력이 장기화될 경우, 원하지 않는 생각들에 대한 주의분산자들이 오히려 원하지 않는 생각 그 자체를 떠올리도록 하는 인출단서 세트들로서 기능하게 된다. 회피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장기기억 체계 내부에서 원치 않는 생각이 다양한 관념들과 연합되면, 역설적으로 원하지 않는 생각은 빈번하게 활성화될 것이며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Macrae, Bodenhausen, Milne과 Jetten(1994)은 반동효과를 반어적인 감찰과정(ironic monitoring process)으로 개념화하였다. 반어적인 감찰과정은 원하지 않는 사고내용이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찰과정 중에 원하지 않는 사고내용(예, 분노-관련 표현)이 탐지될 경우, 억압자들은 회피적

인 노력이 실패했다고 기록하고서 새로운 주의 분산자를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감찰과정은 억압자로 하여금, 자신이 멀리하고자 하는 대상과 연관된 어떤 사고내용들에 매우 민감해지도록 만든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과정은 회피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오히려 원하지 않는 생각이 인식될 가능성을 높여 준다.

사고억제와 관련해서 반동효과 혹은 반어적인 감찰과정 중 어느 쪽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동일하다. 즉, 분노-억압 집단이 분노감과 관계된 사고내용을 의식적으로 생각에서 없애려 하면 할수록, 만성적으로 접근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Newman 등(1997)에 따르면, 이렇게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해진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모호한 행동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억압자들이 위협적인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투사 또는 귀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분노의 억압이 투사로 이어지는 과정은 정신역동적인 이론처럼 무의식적인 기제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사고억제 이론처럼 의식적인 기제로 설명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분노의 억압을 다룬 연구들(Burns, Evon, & Srain-Saloum, 1999; Jamner & Schwartz, 1986; Temoshok, 1985)에서는 주로 생리적인 지표와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대한 반응이 서로 일치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분노 관련 유형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례로 Burns, Evon과 Srain-Saloum(1999)은 분노 억압 집단을 평가할 때, 그들이 다면적 분노 척도(Multidimensional Anger Inventory; 이하 MAI라 함) 및 말로우-크라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이하 MCSD)와 같은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는 낮은 분노 집단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지만, 심장박동률(heart rate)과 같은 생리적인 지표에서는 높은 분노 집단과 유사한 반응 양상을 보이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비록 분노의 억압과 관련해서 연구용 평가도구는 많이 개발되었지만, 임상장면에서는 이러한 평가도구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분노의 억압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 줄 뿐, 그것 이외에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임상장면에서 배터리 형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심리검사 도구인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MMPI라 함)와 로샤 검사(Rorschach test)는 분노의 억압과 관련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특히, MMPI 관련 주요 저서들(Friedman, Webb, & Lewak, 1989; Greene, 1980; Greene, 1991; Lachar, 1981)과 로샤 관련 주요 저서들(Exner, 1993; Lerner, 1991; Schafer, 1954; Weiner, 1998)의 색인에는 "분노의 억압(repressed anger)"이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고영건과 안창일(2003)은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닌, 둘 이상의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임상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다중기법(Ganellen, 1996)을 통해 분노의 억압을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한 바 있다. Ganellen(1996)에 따르면, MMPI와 같은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피검자는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부정적인 특성(투사적인 검사에서 주로 측정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로샤 검사 결과에는 피검자의 자기보고와 관계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Ganellen, 1996). 따라서 MMPI와 로샤 검사가 서로 상이한 정보를 담고있는 점을 활용할 경우, 분노의 억압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영건, 안창일, 2003).

고영건과 안창일(2003)은 MMPI의 내용척도 중 분노 척도(Anger Content Scale ; 이하 ANG)와 로샤 검사의 공백(white space; 이하 S) 반응 및 공격성 척도(Meloy & Gacono, 1992)를 활용해서 분노-억압 집단을 감별하는 기법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분노-억압 집단은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과제에서 분노를 억압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분노와 관련된 사건을 더 적게 회상하였다. 또한 분노-억압 집단은 분노를 억압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분노와 관련된 최초의 기억사건 연령이 더 높았다. 그러한 결과는 MMPI와 로샤 검사를 활용한 다중기법으로 분노-억압 집단을 감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타당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역동 이론과 사고억제 이론 모두 분노를 억압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투사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만약, 고영건과 안창일(2003)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MMPI와 로샤 검사를 이용한 다중기법이 분노-억압 집단을 타당하게 감별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통해 분류된 분노-억압 집단은 잠재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인 투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노의 억압을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사적인 경향성을 평가하는 방법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정서 억압자들이 타인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인 투사를 보이는 점을 규명한 연구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피험자가 특별히 두드러지는 행동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인상을 주는 여자가 등장하는 비디오를 5분간 시청한 뒤, 그 여자에 대해서 6가지 성격척도에 따라 평가하는 기법을 사용한 Newman 등(1997)의 연구이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 억압자들은 비억압자에 비해, 비디오 속의 중립적인 인물이 피험자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하나는 피험자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남자 또는 여자)과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기록지를 제시해 주고서 그 모델과 자신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 Schimel, Psyszczynski, Greenberg, O'Mahen과 Arndt(2000)의 연구이다. 그들에 따르면, 분노 억압자들은 비억압자들에 비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상으로 볼 때, 두 연구는 저마다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Newman, 등(1997)의 연구의 경우, 비디오 속의 인물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피험자가 인물에 대해서 인상을 보다 풍부하고 생동감있게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Schimel 등(2000)의 연구보다 더 우위에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적 조작의 인상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애매하고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Newman 등(1997)이 사용한 방법은 실험적 조작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Newman 등(1997)의 연구에서는 비디오 속의 인물이 여성으로 고정되어 있다. 특히 남녀 간의 성차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한다면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평가된 특성이 투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시된 인물에 대한 순수한 인상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인물에 대해서 가능한 한 실험적 조작(나이, 학력 등)이 용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실험적 조작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노-억압 집단이 특정 조건 하의 인물(여성 등)에 대해서 투사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점을 검증하고자 하기 보다는, 다양한 조건 하의 인물들에 대해서 투사가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Schimel 등(2000)의 절차가 더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MMPI와 로샤검사의 다중기법을 통해 분류된 분노-억압 집단이 방어적인 투사를 보이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MMPI와 로샤 검사를 이용해서 분노-억압 집단을 감별해낸 뒤, 그들이 높은 분노 집단과 낮은 분노 집단에 비해 공격적인 인물에 대해서 방어적인 투사를 더 많이 나타내는 지를 Schimel 등(2000)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피험자로는 한 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 55명(남자 29명, 여자 26명)이 참여하였다. 피험자들은 모두 검사 전 면접 과정에서 정신과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피험자들은 실험을 끝마친 후 자신의 MMPI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로 하고서 자원한 학생들이었다.

측정도구

로샤검사 체계

로샤검사의 실시 및 채점의 모든 과정은 Exner 종합체계(1993)를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단계에서 14개 미만의 반응을 보이는 피검자들의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이도록 격려한 뒤, 반응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이 때 로샤검사는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2년 이상의 임상적인 훈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자 4명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와 관계된 로샤 변인으로서 공백(white space ; 이하 S)반응과 Meloy와 Gacono(1992)의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때, 로샤검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이는 집단을 감별하는 분류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그 하나는 Exner (1993)가 종합체계에서 제안한 바 있는 "S반응수가 3이상이면서 3번 카드 이후의 카드에서 S반응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나타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Gacono와 Meloy(1994)의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격반응수 4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면 높은 수준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MMPI

MMPI는 566문항 표준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시행절차는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94)을 따랐다. MMPI의 ANG 척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임영란, 김진영 및 안창일(1997)이 제안한 "T점수 60점"을 사용하였다.

공격행동자 평정지

본 연구에서는 Schimel 등(2000)이 개발한 공격행동자 평정지를 번안해서 사용했으며 그 평정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절차

분노 유형별 집단의 분류

로샤 검사와 MMPI 결과를 수학적으로 조합하게 되면, 4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 4가지 유형은 로샤 검사에서는 높은 분노를 보이지만 MMPI에서는 낮은 분노를 보이는 집단(분노-억압집단), 로샤 검사와 MMPI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이는 집단(높은 분노 집단), 로샤 검사와 MMPI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분노를 보이는 집단(낮은 분노 집단), 그리고 로샤 검사에서는 낮은 수준의 분노를 보이지만 MMPI에서는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이는 집단(분노-과장 집단)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노-과장 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분노-과장 집단은 PTSD 환자를 비롯한 특수한 임상집단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임상 집단에 속하는 분노-과장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본 연구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피험자들을 분노-억압 집단과 높은 분노 집단 그리고 낮은 분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이들이 대인관계에서 투사적인 편향을 보이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표 1에는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분노 유형별로 제시되어 있다.

공격행동자 평정지의 실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뿐만 아니라 검사자들도 연구목적 및 분석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MMPI와 로샤 검사 결과에 기초해,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한 뒤, MMPI와 로샤를 실시한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피험자들에게 검사실을 재방문하도록 요청하였다.

재방문시 피험자들은 표적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표적인물의 인구학적 특성정보와 감정적 상황의 묘사, 그리고 성격 검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구학적 정보를 제공한 이유는 표적 인물과 피험자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인구학적 정보는 표적 인물이 피험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동성선배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두 번째 정보는 표적인물이 개입된 감정적 상황을 일기의 형태로 쓴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폭력모델과 비폭력모델의 두 가지 조건으로 조작되었다. 폭력모델과 비폭력모델의 처음 두 문장은 동일했지만 나머지 기술들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부록의 A와 B 참조). 분노 억압 집단, 높은 분노 집단, 낮은 분노 집단 모두 절반씩 두 조건에 무선할당되었다. 단, 높은 분노 집단은 구성원수가 홀수였기 때문에 무선할당 과정에서 폭력모델 조건에 한 명이 더 많이 배치되었다. 마지막 정보는 표적 인물에 대한 가짜 성격질문지 결과로, 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Sideris와 Stubing(1993)이 사용한 것이었

표 1.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집단 유형	성별			연령	학력
	남	녀	계		
낮은 분노 집단	11명	9명	20명	19.11(±2.96)	12.14(±2.01)
분노 억압 집단	10명	12명	22명	19.37(±1.77)	12.25(±1.98)
높은 분노 집단	8명	5명	13명	19.99(±2.18)	12.31(±2.34)

다(부록의 D 참조). 이 질문지는 표적 인물을 20개의 성격특성들에 대해서 평정한 것이었다. 표적 인물은 각 특성에 대해서 100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각 점수는 척도 상에 굵은 수직 화살표로 표시되었다. 각 선 아래에 인쇄된 것은 그 특성에 대한 점수였다. 성격질문지는 10개의 중간정도로 바람직한 특성과 10개의 중간정도로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이 표적인물과 차이를 두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 특성의 경우에는 표적 인물이 언제나 25점과 50점 사이에 위치하도록 했으며 부정적 특성의 경우에는 50점과 75점 사이에 위치하도록 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을 실제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성격 질문지가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 절차는 Pyszczynski 등(1993)이 사용한 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모든 피험자에게는 표적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읽을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피험자들이 문서를 다 읽었을 때 실험자는 갑자기 서류들을 거칠게 헤집기 시작하다가 일분쯤 지난 후에 피험자에게 실험의 다음 부분은 간단한 성격질문지를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격질문지가 누락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피험자에게 표적인물의 심리평가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표적 인물의 심리평가 결과지 위에다가 20개의 성격특성에 대해서 피험자 스스로 자기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험자들에게 각 특성이 얼마나 자신을 잘 묘사하는 지의 정도를 척도 상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라고 알려 주었다. 이 절차는 피험자가 자기 평정을 하는 동안 표적 인물의 평정결과를 자연스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표적 인물과 자기 자신 간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후반부에서 피험자는 표적 인물에 관한 질문지(부록의 C 참조)를 작성했는데 이는 조작이 제대로 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폭력-비폭력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험자에게 "당신이 읽은 사례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표적 인물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라고 묻는 문항이었다. 피험자가 표적인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두 번째 측정치로, 20개의 특성 형용사(긍정적인 형용사 10개, 부정적인 형용사 10개)로 구성된 9점 척도 평정지를 사용하였다. 그 평정지에 사용된 형용사들은 분명하게 긍정적(예: 배려하는, 우호적인, 정직한)이거나 분명하게 부정적(예; 자기중심적인, 부정직한, 지배하는)이었다. 이 측정치를 첨가한 이유 역시 폭력모델에 대한 조작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실험적 조작 효과에 대한 검증

표 2에는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에 대해서 공격성, 호감도 및 자신과의 유사성을 평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폭력모델과 비폭력모델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에는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긍정적인 특성항목의 결과를 모두 합산한 긍정적 특성의 총합 항목에 대해서 t 검증을 시행한 결과, 비폭력모델을 평정한 집단이 폭력모델을 평정한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정하였다. 그리고 세부항목에서 열정적인 항목과 솔직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긍정적 항목들에서 폭력모델을 평정한 집단과 비폭력모델을 평정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모델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 결과

	폭행여부	*N*	*M*	*SD*	*t(53)*
공격성	폭력모델	28	7.51	1.48	7.00**
항목	비폭력모델	27	4.95	1.87	
유사성	폭력모델	28	2.69	1.92	-6.23**
항목	비폭력모델	27	5.27	1.91	
호감도	폭력모델	28	2.55	1.48	-7.18**
항목	비폭력모델	27	5.62	2.10	

** $p < .01$.

표 3. 모델에 대한 긍정적 특성 평가

	폭행여부		*t(53)*
	폭력모델 (N=28) *M*(*SD*)	비폭력모델 (N=27) *M*(*SD*)	
긍정특성	32.32(9.01)	52.16(11.81)	-8.75**
열정적인	5.53(2.19)	5.39(1.63)	.74
협조적인	2.93(1.47)	5.25(1.23)	-7.01**
헌신적인	2.23(1.23)	4.25(1.73)	-6.24**
솔직한	6.79(1.66)	6.90(1.44)	-.35
우호적인	2.76(1.47)	5.23(1.67)	-7.24**
예의바른	2.76(1.52)	5.37(1.67)	-7.53**
다정다감	2.09(1.04)	4.67(1.78)	-8.19**
사려깊은	2.02(1.07)	5.23(2.18)	-8.69**
친절한	2.16(1.13)	4.58(1.78)	-7.49**
성격좋은	3.02(1.92)	5.25(1.94)	-5.36**

** $p < .01$

표 4에는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의 부정적인 특성을 평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인 특성항목들의 결과를 모두 합산한 부정적 특성의 총합 항목에 대해서 t 검증을 시행한 결과, 폭력모델을 평정한 집단이 비폭력모델을 평정한 집단 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정하였다. 세부항목에서 비판적인 항목과 근심많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서 폭력모델을 평정한 집단과 비폭력모델을 평정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표 2와 표 3 그리고 표 4의 결과는 모두 폭력모델과 관계된 조작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음을 시사해준다.

표 4. 모델에 대한 부정적 특성 평가

	폭행여부		$t(53)$
	폭력모델 ($N=28$) $M(SD)$	비폭력모델 ($N=27$) $M(SD)$	
부정특성	59.00(10.78)	42.86(12.95)	6.27**
비판적인	5.04(2.09)	5.00(1.69)	.11
잔인한	5.76(2.09)	3.51(1.84)	5.87**
우울한	5.18(1.85)	3.37(1.93)	4.43**
고독한	4.95(1.93)	3.41(1.90)	3.70**
신경질적	7.51(1.48)	4.95(1.87)	7.00**
성급한	7.51(1.72)	5.86(1.45)	4.78**
완고한	6.23(1.84)	4.67(1.80)	3.94**
비사교적	5.60(1.95)	4.23(1.57)	3.58**
근심많은	4.55(1.95)	4.09(1.68)	1.18
적대적인	6.62(1.66)	3.74(1.70)	7.94**

** $p < .01$

결 과

표 5에는 피험자가 표적 인물과 자기 자신 간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도에서 분노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인물과 자신 간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공격행동 평정지에서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의 결과를 참고로 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평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격행동자 평정지에는 표적인물에 대해서 20개의 성격특성들에 기초하여 100점 척도로 평정된 성격검사 결과지(부록의 D) 위에 피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모델에 대한 차별화 점수

폭행여부	집단	N	M	SD
폭력모델	분노-억압 집단	10	553.80	77.11
	낮은 분노 집단	11	324.72	117.07
	높은 분노 집단	7	375.57	111.67
비폭력 모델	분노-억압 집단	10	341.80	75.72
	낮은 분노 집단	11	291.09	143.35
	높은 분노 집단	6	229.33	49.89

표 6. 모델에 대한 차별화 점수의 변량분석

변량원	제III유형 자승화	*df*	평균자승화	*F*
수정된 모델	548878.84(a)	5	109775.76	8.87**
절편	6478447.51	1	6478447.51	523.88**
폭행여부	222126.81	1	222126.81	17.96**
집단	256345.27	2	128172.63	10.36**
폭행여부*집단	85212.39	2	42606.19	3.44*
오차	605941.33	49	12366.15	
전체	8236097.00	55		
수정된 전체	1154820.18	54		

(a) R^2 = .47 (교정된 R^2 = .42)

*p < .05, **p < .01

바로 이 평정지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표적인물의 성격특성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피험자 스스로 평정한 자신의 성격특성 점수 간 차이의 절대값, 즉 표적인물에 대한 차별화 점수를 표적인물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표 6에는 표적인물에 대한 차별화 점수가 폭력모델과 분노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변량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폭력모델과 분노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를 비롯하여 각각의 주효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단순효과(simple effect)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을 시행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비폭력모델 조건 하에서 분노 유형별 단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폭력모델 조건 하에서의 분노 유형별 단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사후검증 절차로 *Tukey* 검증을 시행한 결과,

표 7. 폭력모델 수준별 분노 유형의 단순효과 분석

	변량원	자승화	*df*	평균자승화	*F*	*Tukey* 검증
폭력모델에서의	집단간	292671.75	2	146335.87	19.70**	
분노 유형별	집단내	185691.49	25	7427.66		AR > HA, LA
효과 검증	전체	478363.25	27			
비폭력모델에서의	집단간	47907.57	2	23953.78	1.37	
분노 유형별	집단내	420249.84	24	17510.410		
효과 검증	전체	468157.40	26			

주. AR: 분노-억압 집단, HA: 높은 분노집단, LA: 낮은 분노 집단

**p < .01

표 8. 분노 유형 수준별 폭력모델의 단순효과 분석

	변량원	자승화	*df*	평균자승화	*F*
분노-억압 집단 수준에서의 폭력모델 단순효과 검증	집단간	224720.00	1	224720.00	15.81**
	집단내	255829.20	18	14212.73	
	전체	480549.20	19		
낮은 분노 집단 수준에서의 폭력모델 단순효과 검증	집단간	6222.73	1	6222.73	.47
	집단내	262843.09	20	13142.156	
	전체	269065.82	21		
높은 분노 집단 수준에서의 폭력모델 단순효과 검증	집단간	69091.88	1	69091.88	8.71*
	집단내	87269.05	11	7933.55	
	전체	156360.92	12		

*$p < .05$, **$p < .01$

분노 억압 집단의 차별화 점수가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는 분노 유형 수준별 폭력모델의 단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노-억압 집단과 높은 분노 집단의 경우, 비폭력모델에 비해 폭력모델에서 표적인물에 대한 차별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하지만 낮은 분노 집단은 폭력모델과 비폭력모델 간에 표적인물에 대한 차별화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 결과, 비폭력모델 조건 하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낮은 분노 집단은 폭력모델과 비폭력모델 간에 표적인물에 대한 차별화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노-억압 집단과 높은 분노 집단의 경우에는, 비폭력모델에 비해 폭력모델에서 표적인물에 대한 차별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폭력모델에서 분노-억압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별화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차별화 점수는 피험자들이 표적인물과 자신을 다르다고 평가한 정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모든 피험자들이 폭력적으로 행동한 표적인물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특성에는 더 높은 점수를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에는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표적인물에 대한 차별화 점수가 높다는 것은 사실상 표적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MMPI와 로샤 검사의 다중기법으로 분류한 분노-억압 집단이 폭력적인 인물에 대해서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들이 방어적인 목적에서 자기 내면의 분노감을 외부의 폭력적인 인물에게로 투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노-억압 집단은 MMPI의 ANG 척도 상에서 스스로는 낮은 수준의 분노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다. 비록 이러한 분노-억압 집단이 로샤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의 공격반응수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기 보다는 단순히 공격행동에 대해서 몰두(preoccupation)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분노-억압 집단이 로샤 검사에서 높은 수준의 공격반응수를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분노-억압 집단의 내부에 공격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격성이 표현되는 것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바로 본 연구 결과는 그러한 증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분노-억압 집단은 폭력모델에 대해서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다중기법으로 분류한 분노-억압 집단이 다른 두 집단 보다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러한 공격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로샤 검사 결과는 그러한 공격성이 표적인물의 객관적인 특성과 연관된 것이라기 보다는 평정자인 분노-억압 집단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분노-억압 집단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PI의 ANG 척도 결과가 시사해 주듯이, 의식적으로는 내면의 분노를 잘 드러내지 않거나 시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은 로샤 검사 결과 그리고 폭력모델에 대한 차별화 점수가 시사해 주듯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대상, 즉 공격적인 대상에 대해서 분개하는 방식"으로 내면의 분노를 발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처럼, 분노-억압 집단을 감별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MMPI와 로샤 검사를 실시했을 때, 그 두 가지 검사 결과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두 검사가 정서적인 고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의식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MMPI는 의식적인 수준의 욕구와 감정을 반영하는 반면에 로샤 검사는 무의식적인 역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Greene(1980)은 성격평가 과정에서 피험자가 자신의 성격측면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지 여부가 평가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분노-억압 집단처럼 로샤 검사에서는 내면의 갈등을 보이지만 MMPI에서는 갈등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방어적인 노력에 대해서 자기-기만(self-deception)이라고 불렀다. 또한 Shedler, Mayman과 Manis(1993)는 분노-억압 집단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환상적인 성격의 정신건강(illusory mental health)이라고 명명하였다.

MMPI 결과와 로샤검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검사도구의 민감성이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을 들 수 있다. Gacono와 Meloy(1994)는 특별히 무의식을 가정하지 않고도 두 검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MMPI와 로샤검사가 민감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아-이질적인 긴장(ego-dystonic tension)이 두 검사에 대해서 차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아-동질적인(ego-syntonic) 정신 내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환자들보다 자아-이질적인 정신 내적 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신경증적인 사람들의 경우, 다른 검사들에 비해 로샤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의 공격반응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샤 검사와는 대조적으로 MMPI의 경우, 자아-이질적인 정신 내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증 환자들은 타인의 비판을 염려해서 내면의 분노감을 잘 시인하지 않을 수 있

다. 이처럼 두 검사에 대해서 자아-이질적인 긴장이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분노-억압 집단은 분노 표현이 자신과 관계된 경우에만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MMPI에서 피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는 반면에, 로샤 검사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자극카드가 무엇처럼 보이는 지에 대해서 응답하게 된다. 따라서 분노-억압 집단이 로샤 카드에 반응할 때는 MMPI와는 달리, 의식적인 감찰과정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MPI와 로샤 검사를 활용한 다중기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는 분노-억압 집단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의식적인 과정으로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MMPI와 로샤 검사의 다중기법은 정신역동 이론가와 사고억제 이론가 양측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활용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해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심리평가 과정에서 분노의 억압을 평가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분노-억압 집단이 내면의 분노감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또 숨기고자 노력하게 되는 근본 동기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노의 억압은 임상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담자 자신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억압을 통해 잊어버렸던 사고내용들은 나중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된다. Vaillant(1977)는 임상적 면접자료 및 심리평가 결과와는 모순되게, 주관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던 대학생들이, 35년이 지나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게 되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억압을 통해 잊어버렸던 사고내용들은 나중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왜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억압이 풀리면,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을 미리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심리평가를 통해 알려주어야 하는가? 억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처한 문제 상황에서는 단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어떤 의미에서 신경증적인 억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식의 미성숙한 방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나에게도 득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숙한 방어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지불식 간에 신경증적인 기제를 선택함으로써 현실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신경증적인 억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돌멩이가 들어간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꾹참고 서있는 것과 비슷하다(Vaillant, 1992). 따라서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돌멩이가 들어간 구두를 신고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서 있도록 허용하기보다는, 본인의 고통을 스스로 인식하고서 보다 창조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억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간신히 억눌러 놓은 심리적인 고통에 직면하는 것일 뿐이다. 창조적인 대안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분노의 억압은 내부의 분노를 인식하는 것을 단순하게 회피하고자 노력하는 수동적인 기제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자기 이외의 다른 대상들의 분노를 불균형적으로 인식하는 매우 능동적인 기제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Weinberger,

Schwartz와 Davidson(1979)의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정서-억압자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회피적인 특성이 은연중에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은 모든 분노 관련 표현들을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자신과 관계된 경우에만 회피적인 노력을 보인다. 이처럼 분노의 억압을 위해 자신과 타인을 불균형적으로 지각하고자 노력한 부산물이 바로 투사라고 할 수 있다. 분노의 억압은 내면의 분노감을 묻어두려 한다는 점에서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 갈등을 반영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투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상의 갈등을 반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로 대학생 집단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정신과 환자 집단에 적용할 경우 이러한 차이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노-억압 집단을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생리적인 지표를 활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MMPI와 로샤 검사를 통해 분류된 분노-억압 집단이 실제로 분노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리적인 측정치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중기법과 생리적인 지표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작업이 요망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고영건, 안창일 (2003). MMPI와 로샤 검사를 이용한 분노의 억압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207-228.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94). 다면적 인성검사 (MMPI). 서울: 한국가이던스.

임영란, 김진영, 안창일 (1997).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표준화연구: 규준 및 예비적 해석 자료.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 16(1), 131-149.

Albrecht, H. (2001). Medicinal diagnostics of pain between myth and reality - chronic lower back pain, an illness of the upright walk. *Forsch Komplementarmed Klass Naturheilkd. 8,* 288-29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DSM-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urns, J. W., Evon, D., & Strain-Saloum, C. (1999). Repressed anger and patterns of ardiovascular, self-report and behavioral responses: effects of harassmen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7,* 569-81.

Davis, P. J., & Schwartz, G, E. (1987). Repression and the Inaccessibility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55-162.

Exner, J. E. (1993).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ume 1:* Basic foundations, (3rd Ed.). New York: Wiley.

Freud, S. (1935).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J. Riviere, Trans.) New York: Perma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20).

Freud, S. (1962). Further remarks on the neuro-psychoses of defence. In *The Standard Edition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3* (J. Strachey Trans.),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96).

Friedman, A. F., Webb, J. T., & Lewak, R. L. (1989). *Psychological Assessment with the MMPI.*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Gac ono, C., & Meloy, R.(1994). *The Rorschach Assessment of Aggressive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Ganellen, R. J. (1996). *Integrating the Rorschach and the MMPI-2 in Personality Assessme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Greene, R. L. (1980). *The MMPI : An Interpretative Manual.* New York: Grune & Stratton.

Greene, R. L. (1991). *The MMPI-2/MMPI : An Interpretative Manual.*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Harenstam, A., Theorell, T., & Kaijser, L. (2000). Coping with anger-provoking situations, psychosocial working conditions, and ECG-detected signs of coronary heart diseas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 191-203.

Henry, J. P. (1988). Stress, salt and hyperten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26, 293-302.

Hiller J. E. (1989). Breast cancer: a psychogenic disease? *Women Health.* 15, 5-18.

Jamner, L. D., & Schwartz, G. E. (1986). Integration of self-report and physiological indices of affect: interactions with repressive coping strategies. *Psychophysiology*, 23, 444.

Jung, C. G. (1971). Aion: Researches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In J. Campbell (Ed.), *The Portable Jung*(pp. 139-162). NewYork: The Viking Press, Inc. (Original work published 1951).

Lachar, D. (1981). *The MMPI : Clinical Assessment and Automated Interpretation*.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Lerner, P. (1991).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the Rorschach.* Hillsdale, NJ. Analytic Press.

Macrae, C. N., Bodenhausen, G. V., Milne, A. B., & Jetten, J. (1994). Out of mind but back in sight : Stereotypes on the reboun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08-817.

Meloy, R., & Gacono, C. (1992). The aggression response and the Rorschac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104-114.*

Newman, L. S., Duff, K., & Baumeister, R. F. (1997). A new look at defensive projection: Thought suppression, Accessibility, and Biased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980-1001.

Packard, R. C., Andrasik, F., & Weaver, R. (1989). When headaches are good. *Headache, 29,* 100-102.

Phipps, S., & Steele, R. (2002). Repressive adaptive style in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Psychosomatic medicine,* 64, 34-42.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Sideris, J., & Stubing, M., J. (1993).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reduction of motivated cognitive bias Evidence from victims'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91-200.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Cather, C., Gat, I., & Sideris, J. (1995). Defensive distancing from victims of serious illness. : The role of dela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3-20.

Schafer, R. (1954).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in*

Rorschach Testing. New York: Grune & Stratton, Inc.

Schimel, J., Psyszczynski, T., Greenberg, J., O'Mahen, H., & Arndt, J. (2000). Running from the shadow: psychological distancing from others to deny characteristics people fear in them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46-62.

Shedler, J., Mayman, M., & Manis, M. (1993). The illusion of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8, 1117-1131.

Temoshok, L. (1985). Biopsychosocial studies on cutaneous malignant melanoma: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prognostic indicators, progression, psychophysiology and tumor-host response. *Social Science & Medicine*, 20(8), 833-840.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Vaillant, G. E.(1992). *Ego Mechanims of Defense*. A Guide for Clinicians and Researchers. Wasc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Vaillant, G. E. (2000) Adaptive mental mechanism: Their role in a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89-98.

Weinberger, D. A., Schwartz, G. E., & Davidson, R., J.(1979). Low-anxious, high-anxious and expressive coping styles : psychometric patterns and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69-380.

Weiner, I. B. (1998). *Principles of Rorschach Interpret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White, R. W. (1964). *The Abnormal Personality* . NewYork: Ronald.

Yellowlees P. M., & Ruffin R. E. (1989). Psychological defenses and coping styles in patients following a life-threatening attack of asthma. *Chest*. 95, 1298-303.

원 고 접 수 일 : 2003. 4. 7
게 재 결 정 일 : 2003. 5. 22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 Vol. 22, No. 3, 641 - 660

The defensive projection of anger-repression group

Young-Gun Ko Chang-Yil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if the anger-repression group showed defensive proj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sycho-dynamic theory and the thought suppression theory. The subjects were 55 undergraduates(male 29, female 26) who were taking a cultural course of Psychology. They were divided into 3 groups(high anger group, low anger group, anger-repression group) by the multimethod using MMPI and the Rorschach test. The each group was asked to rate the actor having done certain violent behavior.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ger-repression group showed substantially higher scores on the ratings of psychological discrimination against others under the violent condition than the other two group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the score is, the more negative the judgement is. Therefore, the anger-repression group classified by the multimethod seems to have a biased interpersonal perception, namely defensive projection. The clinical meaning of anger-repression and suggestions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Anger-repression, Defensive Projection, Multimethod, MMPI, Rorschach Test.

부 록
공격행동자 평정지

A. 폭력적인 인물의 정서체험 기록지

다음에 소개되는 (남자 또는 여자)대학생은 (피험자의 소속 대학명)에 재학중이며 현재 나이는 (피험자보다 한 살 위)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갔을 때 나의 꼬마 사촌이 몇 주 간 우리 집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작고 예의바른 꼬마였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와 내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내 책상에서 매직 몇 개를 꺼내갔고 내 방 벽에 동물 그림들을 그린 것을 알게 발견하였다 .나는 화가 나서 그 아이의 손에서 매직을 빼앗은 다음 팔을 붙들었다.그리고 그 아이가 울 때까지 마구 흔들고는 때려주었다 .다음 날 그 아이는 내가 때린 눈 부위에 멍이 든 것으로 보아 나는 무척 화가 났었던 것 같았다.

B. 비폭력적인 인물의 정서체험 기록지

다음에 소개되는 (남자 또는 여자)대학생은 (피험자의 소속 대학명)에 재학중이며 현재 나이는 (피험자보다 한 살 위)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갔을 때 나의 꼬마 사촌이 몇 주 간 우리 집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작고 예의바른 꼬마였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와 내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내 책상에서 매직 몇 개를 꺼내갔고 내 방 벽에 동물 그림들을 그린 것을 알게 발견하였다 .나는 화가 나서 그 아이의 손에서 매직을 빼앗은 다음 그만두라고 말하였다.저녁식사 후 내가 화가 가라앉았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매직으로 벽에 낙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해 주었다.나중에 그 아이가 벽 청소하는 일을 거들도록 하였다.

C. 성격특성 관련 질문지

*** 당신의 성격은 앞에서 소개된 학생의 성격과 얼만큼 유사합니까?**

(매우 비공격적) 1 2 3 4 5 6 7 8 9 (매우 비슷하다)

*** 당신의 성격은 앞에서 소개된 학생의 성격과 얼만큼 유사합니까?**

(매우 다르다) 1 2 3 4 5 6 7 8 9 (매우 비슷하다)

*** 앞에서 소개한 학생에 대한 당신의 호감도는?**

(매우 싫어한다) 1 2 3 4 5 6 7 8 9 매우 좋아하다

*** 앞에서 소개한 학생의 성격특성을 당신이 평가한다면?**

아래의 20개 항목들에 대해서 9점 척도로 평정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정력적인/협조적인/헌신적인/솔직한/우호적인/예의바른/다정다감한/사려깊은/친절한/성격이 좋은/비판적인/잔인한/우울한/고독한/신경질적인/성급한/완고한/비사교적인/근심많은/적대적인

D. 심리평가 결과지

다음은 ○○○님의 K-SPT 성격평가 결과입니다. 화살표는 ○○○님이 해당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 나와있는 본 성격검사 프로파일 해석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재치있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뻔뻔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지혜로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기-만족적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성적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의깊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솔직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까다로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복종적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잘 잊어먹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충실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신중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진보적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서툰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여유가 없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지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치하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섬세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편견이 있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우쭐대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